

Koji Hirata, *Making Mao's Steelworks: Industrial Manchuria and the Transnational Origins of Chinese Soc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370 pp.

양채리†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중공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이후 매년 10억 톤 이상의 철강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낮은 단가를 무기로 한 중국산 철강은 세계 각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성장은 단순히 시장의 자연적 확대나 민간 산업의 역동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중국 철강 산업의 기반은 출발 단계부터 철저한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속에서 구축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공업 육성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던 20세기 중국의 산업·경제 발전사 흐름과 맞물려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세계 3위 규모의 철강 생산 기업인 안산강철집단 유한공사(鞍山鋼鐵集團有限公司, Ansteel Group Corporation Limited, 이하 안산강철)이다. 만주 지역 안산(鞍山)에 위치한 안산강철은 설립 초기부터 국가의 감독과 관리하에서 발전을 이룬 상징적 존재로서, 중국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 히라타 코지(平田康治)는 안산강철의 발전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만주 지역 중공업 발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순

† 고려대학교 사학과, aug_7@naver.com

히 지역 산업사에 머물지 않는다. 히라타는 만주에서 구축된 계획 경제 시스템이 중국 전체 경제 운영 모델의 원형이자 실험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안산을 중심으로 한 만주 지역의 경험은 이후 중국 계획 경제의 제도적 기초, 관리 방식, 산업 발전 전략의 전반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공업 발전은 만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제1장은 만주가 그 출발점이 된 시기, 즉 1945년 이전까지의 단계를 집중적으로 논한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일본은 만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식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1918년 일본이 만주의 안산 지역에 안산강철의 전신이 되는 안산 제철소(鞍山製鐵所)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전간기, 특히 대공황을 전후하여 구미식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위기를 맞자 소련의 국가 주도 계획 경제가 대안적 모델로서 국제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역시 국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만주의 공업화를 일본 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이 시점의 일이다.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에서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1933년 만주국 정부가 발표한 『만주국 경제 건설 강요(滿洲國經濟建設綱要)』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지배”를 명시적으로 천명하며 계획 경제 기반의 공업화 정책을 제도화했다(43). 그 결과 만주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특히 철강 분야를 비롯한 중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은 이후 중국 경제 체제 정립의 핵심적 토대로 기능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만주에서 철군하면서 이 지역의 공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제2장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시기에 주목하여, 소련군 점령으로 인한 만주 산업의 황폐화 과정과 그 이후 중국국민당 정부가 만주 공업을 재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민당 정부는 만주국 시기에 일본이 구축해 둔 산업 기반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중공업 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1945년 얄타 회담의 결정에 따라 소련군이 만주 대부분을 점령하며 상황은 급변

했다. 소련군은 전리품 확보 및 자국 경제 재건을 명목으로 만주 지역의 일본 공장을 해체하여 소련 영토로 이전하려 하였다. 그 결과 만주의 공업 생산량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여전히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발전된 중공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1946년부터 국민당이 이 지역을 점유하게 되면서 국민당은 본격적으로 만주의 기업과 공장을 국유화하였다. 특히 안산에서는 국민당 자원위원회(資源委員會) 산하의 안산강철유한공사가 설립되어, 안산 일대 일본 공장 22곳 이상을 통합하는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시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국민당의 국영기업 시스템이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국민당 정부가 만주의 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일본인들이었다. 만주국 시기부터 이 지역에 정착해 있던 일본인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은 물론, 다카사키 다츠노스케(高碓達之助)와 같은 정책 입안자들까지 다양한 일본 인력과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이들을 통해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인적 자원과 지적 기반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만주 산업의 복구와 운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제공했다.

3장과 4장은 1948년 말 중국공산당이 만주 지역을 장악한 이후, 이 지역에 남겨진 산업적 유산과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계승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소련식 계획 경제를 지향하였다. 당시 중국은 소련을 “큰 형님(老大哥)”으로 칭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자 기술적·제도적 스승으로 인식했다(130). 이는 단순한 존경과 애정을 담은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소련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며 신중국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지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핵심 목표는 중공업 우선 발전이었으며, 특히 만주 지역이 이 계획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안산강철을 비롯한 만주의 주요 공업 지대는 전체 공업 투자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집중적 자본을 배정받았다. 만주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 산업화 과정에서 구축된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단기간에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산업화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만주를 새로운 경제 실험의 장으로 삼고자 했으며, 소련식 계획 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만주에서 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사전적으로 시험·구현하여 경제 운영의 기초 모델을 구축한 뒤, 그 성과와 방식을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

산시키고자 했다.

만주의 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만주에 남아있던 일본 및 국민당 정권의 인적 자원을 불가피하게 활용하였다. 중공은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의 정치적 기조하에 국민당 인력을 포섭하며 이들의 협력을 정당화하는 한편, 일본인 거주지 분리 정책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고자 했다. 결국 일본과 국민당의 유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중공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이다. 또한 만주에 남아있던 물적 자원 역시 중국 중공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 시기 중공은 일본이 건설해 놓은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 산업화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국민당 정부가 일본 잔존 산업을 토대로 재편한 국영기업이 다수 만주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중공이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당 정부의 유산 덕분에 만주의 산업은 다른 지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146). 일본 제국은 만주를 식민지 중공업 기지로 만들기 위해 공장·광산·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했고, 전후에는 국민당 정부가 이 시설들을 국영기업 체제로 재조직·재구조화하였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일본인 기술자와 국민당 전문가의 지식을 흡수하며 이 체제를 안정화하고 확장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의 역사적 누적은 기반으로, 만주는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국가 주도의 중공업 발전 전략이 가장 빠르고 가장 완결된 형태로 구현된 공간이 되었고 사회주의 산업화의 핵심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제5장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만주의 국영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표방하였으나, 실제적 작동 단계에서는 지방 정부와 지역 당 조직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안산강철을 둘러싼 중국공산당 안산시위원회의 개입은 그 대표적 사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51년 일장제(一長制), 즉 국영기업 관리자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소련식 기업 관리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지역 간부와 및 당 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지역 당 지도부는 기업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축소되는 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안산시 당 위원회는 안산강철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산강철 문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결국 중국공산당 안강위원회(鞍鋼委員

會)를 설치해 지역 당 조직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지역 간부들의 반발 속에서 일장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1956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음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소련이 모스크바의 중앙 지침에 따라 수직적으로 운영되는 체제였다면, 중국은 중앙 당 조직의 명령과 지역 당 조직의 실질적 영향력이 공존하는 이중적 권력 구조 사이에서 긴장과 조정이 반복되는 체제였다.

중국공산당이 중시한 것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뿐만이 아니었다. 중공의 언어로 사고하고 생활하는 사회주의적 “인재”로 노동자들을 개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224). 제6장은 국영기업, 특히 안산강철 내 노동자와 기술자의 정치적·사상적 재형성을 위해 중공이 기울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안산강철의 노동자들은 삼반오반운동(三反五反運動)을 비롯한 다양한 군중운동을 통해서 정치 규율과 사상을 교육받았다. 안산강철의 교육부서에서는 정치훈련반(政治訓練班)을 운영해 노동자 계급의 사명, 중국공산당의 지도 이념 등을 강의하고 토론하게 했다. 공장 내부에는 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선전원이 상주하며, 노동자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동료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수행했다(210). 1957년 백화제방(百花齊放) 운동에서 드러난 안산강철 기술자들의 글은 노동자·기술자들이 중공의 담론과 언어를 적극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당원과 간부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그 표현 방식은 철저히 당이 승인한 언어 규범 속에 있었다. 예컨대 “당과 마오쩌둥 주석의 훌륭한 영도 아래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정치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비당원 기술자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당에 대한 비판조차 사회주의적 표현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222). 이러한 정치 교육은 대부분 지역 당 위원회가 주도했다. 이는 안산강철과 같은 대규모 국영기업에서 지역 간부들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공업 발전이 추진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점차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인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악화된 중소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치

적 긴장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더 이상 소련 모델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경제 체제와 산업 정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제7장은 바로 이러한 중소분열의 맥락 속에서 변화된 중국 경제 체제의 변화를 다룬다. 특히 만주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중요한 사례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기간 중 안산강철에 대한 보고서에 큰 만족을 표하며 이를 “안강헌법(鞍鋼憲法)”으로 명명하였다. 안강헌법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성공 사례를 넘어, 중국이 소련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산업 발전 경로를 모색하겠다는 상징으로 기능했다. 동시에 이는 국영기업 운영과 관련해 지방 정부에 일정 권한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제3전선 건설(“삼선건설”)은 연해 지역의 기존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내륙과 전략적 요충지로 자원을 재배치하며 지방 정부의 국영기업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 공업화와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 단순한 외부 모방이 아니라, 정치·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제8장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2000년까지 중국 경제의 변화를 다룬다. 흔히 중국의 경제 성장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덕분이라고 단편적으로 평가되며, 현대 중국 경제사는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라는 “이분법적 틀”로 이해되기 쉽다(302). 그러나 저자는 마오 시대의 경제 운용 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영기업 구조에서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음을 강조한다. 1980년대 후반, 민간 기업과 시장 지향적 개혁이 점차 확대되며 소규모 국영기업은 민영화되었으나, 대규모 국영기업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다. 대표적 사례인 안산강철은 1991년 베이징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1993년 공식적으로 중앙직속기업(中央直屬企業)이 되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영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1997년 이후 대형 국영기업은 국가 소유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은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점진적·선택적 개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규모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와 정치적·경제적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개혁개방 이후에도 마오쩌둥 시대 경제 구조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된 논지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단절된 사건의 나열이나 독립적인 정책 변화의 연속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만주 경

제 발전 초기에 일본, 중국국민당, 소련, 중국공산당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이 관여하였으며,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진 독립적 주체들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 행위자들이 남긴 경제적·제도적 유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즉, 각 행위자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전 시기의 정책과 제도, 기술적·물적 자원을 연결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며 누적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으로 점차 편입되고 계획 경제 체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시장 지향적 제도가 등장하자, 이전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의 구조적·제도적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중앙-지방정부 간 권력 분점 구조, 산업 기반과 기술력, 지역적 경제 특성 등은 과거 계획 경제의 흔적과 연속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계획 경제 시기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기를 단정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두 개의 상반된 경제 모델로 보는 전통적 접근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중국 산업 및 경제 발전사를 바라보면, 정책 변화와 경제 성장이 단절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계획과 시장, 중앙과 지역, 국내적 여건과 국제적 영향이 서로 맞물리며 발전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 성장과 그 구조적 특징, 나아가 현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간과되기 쉬운 경제적·정치적 연속성,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 또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